

불자 세상보기



남지심 소설가

내가 잘 아는 부인은 서울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던 중산층이었다. 그런데 IMF 이후 남편의 사업이 급속도로 기울어져 마침내 살던 집까지 빼앗기고 서울근교에서 컨테이너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 때 부인은 어쩔 수 없이 아는 지인들한테 돈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몰락한 그녀한테 돈을 빌려줄 지인들이 있을 턱이 없었다. 돈을 빌려 줄 사람이 없는데 돈을 빌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 부인은 그 때 '돈을 빌리는 일에도 최선을 다 하자.'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면서 그 수모의 순간들을 넘겨갔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친척집에 가서 김장을 거들어 주고 김치를 얻어 가지고 한강 다리를 건너는 데 여의도 쪽에서 불꽃놀이하고 있는 게 보였다. 그 순간 뼈 속까지 파고드는 쓸쓸 함, 지구 밖으로 쫓겨나는 것 같은 쓸쓸함에 마지막 잡고 있던 삶의 끈마저 놓아 버리고 싶어지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인은 이런 말로 자신의 심경을 설명했다. '살겠다 고 발버둥치는 사람은 도와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발버둥 칠 힘마저 지탱할 힘이 없어지니까요.'

10년 세월이 흐른 지금 그 부인은 옛날의 중산층으로 다시 돌아 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부인은 가난을 알았다는 걸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만약 그 때의 가난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자신이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담긴 따뜻한 손으로 힘든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삶을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이라고 믿으며 주위 사람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고 있다.

이 차가운 세모(歲暮)에 삶의 끈을 놓아 버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엔 분명히 있다. 어쩌면 놓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입으로 부처님 법을 떠들어대고 있다면 그런 내 자신을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할는지? 남에게 인정을 받을 만큼 잘살기란 쉽지가 않다. 내가 나를 인정할 만큼 잘살기란 그보다 훨씬 더 쉽지가 않다. 우리 모두는 잘살기 위해 살고 있는데 참으로 잘살기란 이렇게 쉽지 않으니, 이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 하고 다음 해를 맞이 할지 마음이 무겁다.

나는 가끔 친지 집에서 김장을 해주고 김치 몇 포기 를 얻어가지고 한강 다리를 건너다가 불꽃놀이 축제를 보고 지구 밖으로 쫓겨난 것 같은 쓸쓸함을 느꼈던 부인 모습을 떠올려본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이, 내 입에서 나오는 현학적인 말들이 누구의 가슴을 쓸쓸하게 해 주는 불꽃놀이는 아닌지, 하고 말이다.

우리의 욕망은 풍요로움과 안락함과 군림에 맞춰져 있다. 끝없이 이것들을 향해 질주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얻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과시하려 한다. 불꽃놀이 축제를 벌이고 싶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행복이라고 믿고 있다. 다른 사람들 쓸쓸하게 만들면서, 삶의 줄을 놓고 싶을 만큼 쓸쓸하게 만들면서 행복감을 느끼다니, 우린 이렇게 잔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유한한 삶을 향유하고 있는 우린 시간의 개념을 받아 드리고 있다. 시간에 대한 인식이 투철하면 할수록 삶이 정화되어 가는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그 시점이 1년을 마감하는 지금이라는 생각이 든다. 흘러버린 시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남은 며칠을 잘 보냄으로써 우린 금년 한 해의 자신의 삶을 정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화할 수 있을까? 그건 생명에 대한 따뜻한, 내 안의 온기다. 우리가 체온을 1도 높이면 면역 세포가 3배로 강해진다고 한다. 그래서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라는 것이다.

나는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자비심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다. 자비심을 1도 높이면 그 자비심은 내 안의 사악함을 제거하는 몇 배의 힘을 얻게 된다. 내가 짓는 따뜻한 표정, 따뜻한 손길, 따뜻한 마음이 다른 사람의 언 마음을 녹여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듯, 내 안의 자비심은 내 언 마음을 녹여 내 안의 사악함을 제거시켜 준다.

배판다는 것은 남의 언 마음을, 내 안의 언 마음을 함께 녹이는 봄 햇살이다. 며칠 남지 않은 이 세모(歲暮)에 우리의 시선을 이웃에게 돌려 그들이 삶의 끈을 놓지 않도록 따뜻한 봄 햇살이 되자. 나도 남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절박한 순간이 있었듯이, 지금 이 순간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이웃이 내 곁에 있음에 대해 부디 눈 감지 마시기를,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社說

국고 보조금 투명 집행 당연

조계종이 내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국고 보조금이 493억 7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234억원이 늘어난 액수다.

특히 10.27법안기념관 건립에 200억원이 책정돼 조계종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총본산 성역화 불사'가 분개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성역화 불사를 위해 조계종은 지난 11월 17일 '총본산 성역화 불사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봉행했고, 조계사 일대를 해원·상생의 공간으로 만들 것을 천명했다.

내년 10월 8~11일 개최할 예정인 '국민화합과 세계평화 기원대회'는 신규 사업으로 책정돼 9억 원의 예산이, 동국대가 108주년 기념관 내에 건립할 예정인 '세계불교센터 건립'에는 5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밖에 또 연등축제 활성화, 전통사찰 전수조사, 호국불교의승군 기념관 건립 등의 다양한 사업에 대해 국고 지원이 이뤄진다. 단순히 종단을 통한 집객과 일선 사찰과 불교 단체에서 지원받는 국고보조금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종교단체에게 이뤄지는 국고 보조금 지원이 옳은가, 그렇지'에 대해서는 차제하더라도 국고 보조금의 투명하고 엄정한 집행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다. 국고 보조금은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듯 쉽게 얻을 수 있는 눈먼 돈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로 이뤄진 중요한 정재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스님들이 국고 보조금을 유용해 물의를 빚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11월 29일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종교문화재 예산 지원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황명우 문화재전문위원은 "소득세 납부 등 종교인 스스로 지켜야 할 의무의 이행은 외면하면서 국고보조금이라는 권리만 챙기려는 태도는 종교 본연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불교 발전과 국민을 위해 받은 국고보조금이라면 제대로 집행해 사회에 회향할 수 있어야 한다. 엄정한 국고 보조금 집행을 다시 한번 부탁한다.

불교 국제개발협력 협의회 발족 환영

20년전부터 불교계는 해외구호활동에 팔을 걷어 부치고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각 단체들의 역량은 이제 웅만한 구호단체에 전혀 뒤지지 않을 만큼 성장했다. 하지만 이들이 함께 손을 맞잡으면 더욱더 큰 힘이 발휘되지 않을까? 그 꿈이 내년에 실현된다. 2015년 2월 불교계 국제개발협력 단체들이 활동을 공유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협의회를 구축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보경스님)은 11월 27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에서 불교계 국제개발협력 협의회 구축을 위한 실무책임자 회의를 갖고 협의회 발족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과 함께 내년 2월에 협의회를 발족하기로 결정했다. 준비위원회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지구공생생태, 로터스월드, 더프라미스,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연우 등 6개 단체로 구성됐다. 불교계에는 현재 30여 기관 및 단체들이 직·

간접적으로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 교계 국제개발협력 기관의 숫자가 급속히 증가했고 개별 기관들의 해외사업 규모가 급성장함에 따라 단체 간의 협력의 필요성이 그동안 꾸준히 증대돼왔다.

이에 불교계 국제개발협력 단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월 1회 활동가 정기모임을 진행, 해외사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 노하우를 공유하며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시도해 왔다. 특히 지난 8월에는 7개 단체 20여명의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힐링 캠프를 열기도 했다. 아무리 질 높은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공동체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서로 확인하는 계기가 없다면 그 교육은 의미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협의회 구성은 국제개발 및 구호활동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발언대

파리 기메박물관 간화선 행사를 회향하며



혜원 스님 파리길상사주지

프랑스와 유럽인들에게 아시아 문화 예술을 소개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기메 중앙 박물관에서 지난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에 걸쳐 한국 선불교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가 개최됐다. 본 행사를 위해 대한불교 조계종 제 14교구 본사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이 초청돼 간화선 실참 및 강연회를 진행했으며, 프랑스 땅에 아직까지는 생소한 한국 선불교 전통을 알리는데 소중한 계기가 됐다.

기메 중앙 박물관은 1889년 창설자 에밀 기메에 의해 설립된 당시부터 아시아의 종교, 특히 불교 문화를 알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곳으로, 1891년 본 박물관 도서관에서 최초로 거행된 불교 의식은 당시 프랑스의 저명 인사들에게 큰 감화를 주었다고 박물관

의 기록에 남아있다.

시절 인연이 도래해 기메 박물관에서는 한국 선불교 문화 행사를 개최하자는 제안에 흔쾌히 응했으며, 지난 1년간 여러 지인들의 크고 작은 손길에 힘입어 이번 행사를 여법하게 치를 수 있었다. 특히, 전통 문화재 수리와 복원을 전문으로 하는 '도화원' 소속 장인들이 깊은 신심과 원력으로 5m 높이에 해당하는 패블을 제작해 법연에 참석한 대중들로 하여금 패블의 위용 앞에서 찬탄과 환희심을 자아냈다.

패블로 장엄이 된 행사장은 이름 그대로 부처님을 모시는 붓다관으로 변모하였으며, 바로 이 자리에서 3일간에 걸쳐 수불 스님의 지도하에 800여년에 걸쳐 전승돼 온 간화선 수행의 요체와 수행 방법이 현지인들에게 소개돼 많은 호응과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행사를 준비한 필자로서도 의아할 정도로 현지인들의 큰 관심을 보면서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번 행사에 관심을 보였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됐다. 이에 대한 해답은 기메 행사가 단

일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번 의미에서 이번 행사를 개최한 기메 박물관 측이 정한 주제인 '21세기에 선(禪)을 가르치다'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물관은 간화선이라는 전통이 오늘날 어떤 형태로 살아 숨쉬는 지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한국의 훌륭한 선사들 가운데 수불 스님을 초청해 간화선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에 어떻게 접목 가능한지에 대해 행사의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기메 박물관 측의 취지와 관심은 소피 마카리우 관장의 행사 브로셔에 글에서도 잘 나타난다.

"아시아의 전통을 알리고 가장 숭고한 예술적 표현들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시대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대선사들과 마음을 터놓고 수준 높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본다. 이번 의미에서 이번엔 수불 스님을 모시고 기메 박물관에서 개최하는 본 행사가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경험으로 정신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다. 기메 박물관이 설립된 19세기 말, 우리 이웃 나라 불교들이 유럽의 문화의 중심지에서 소개가 될 당시, 한국 불교는 근대사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산중 불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2014년 이 유서 깊은 장소에서 최초로 한국 선사를 모시고 간화선을 소개하는 행사가 열렸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이번 행사는 한국 불교가 기메 중앙 박물관의 역사에 획을 긋는 의미 있는 행사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고, 이 시대에 한국 불교가 외래 문화와 어떻게 교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준 행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한국 불교의 법의 꽃비가 프랑스에 흠뻑 내리기를, 그리고 우리 사회에 간화선이 더욱 널리 보급되기를 발원해본다.

파리에서 꽃 피운 한국불교 간화선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를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판'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망,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 (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진성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 사주팔자(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뒤어 넘을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무복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 영가천도의 중요성 ”

글쓴이 : 혜전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어려움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전법사

책자 안내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괘의 상점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전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